버니 글래스만 타계 마지막까지 '자비행'

'젠 피스메이커' 창립자… 35년 넘게 봉사 펼쳐



사진출처=tricycle

박정현 객원기자

지난달 별세, CNN 업적 조명
사회적 기업 창립 · 약자 지원
약물중독자와 장애인 등 고용
미국사회선 수행 전파 선구자
사회복지사이자 때론 광대로
빈곤층 돕기 위한 활동 펼쳐

긴 머리와 슬픈 눈, 늘 물고 있던 담배. 세계적 선 수행 지도자 버니 글래스만(Bernie Glassman)은 전통적인 선 수행자라고 보기에 어딘가 낯선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강렬하고도 자비로운 불교 선구자였다.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CNN은 지난달 4일 79세 나이로 타계한 글래스만의 업적을 조명했다.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글래스만은 불교 공동체 젠 피스메이커(Zen Peacemakers)의 창립자로서, 인정받는 선 지도자이자 불교 선구자다. 젠 피스메이커는 전 세계 25개 지부를 두고 약 1200명에 달하는 신도를 보유한다. 서구 불교 커뮤니티로서는 꽤 큰 규모다. 헐리우드 스타와 함께 간화선에 대한 책을 쓰기도 해 미국에서 간화선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특히 그는 '쉼 없는' 자비 보살이었다고 평가받는다. 불교 정신을 기반으로 빵집을 운영하면서 사회봉사에 몰두, 결국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가 1982년 젠 피스메이커를 창립할 당시 함께 연 빵집은 '열린 고용'을 통해 약물 중독자, 장애인 등을 고용했다. 수익금은 공익 재단에 기부해 에이즈 환자를 위한 주택 제공, 사회복지 서비스 등에 활용됐다. 훗날 1000만 달러 규모의 회사로 성장해 세계적인 '불교 사회적 기업'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에이즈 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 시설인 젠 호스피스(Zen Hospice) 설립자 프랭크 오스타세스키(Frank Ostaseski)는 "글래스만이 가장 잘한 것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었다"며 "그는 사람들의 물질적 욕구를 채워주고, 정신적 생계를 유지시켜줬다"고 치켜세웠다.

게다가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자행한 대학살로 유대인이 강제 수용됐을 때는 그곳에서 그들을 위한 영적 치료도 진행했다. 또한 35년 가까이 노숙자들을 위한 봉사에도 임했다고.

CNN은 "글래스만은 항상 주변을 둘러보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했다"며 "많은 미국 불자들이 사회참여보다 자기계발을 선호할 때 글래스만은 마네킹명상(mannequin meditation)을 벗어나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선 센터를 '공기 좋은 곳'에서 혼잡한 도시 거리로 옮겨 붐비는 공원에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글래스만은 2년 전 뇌졸중을 앓으면서도 불교 명상 전파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 '명상'을 삶을 치유하는 근본 방법이 아닌 '생활'로 가르치는데 힘쓴 것으로 보인다. 그의 세 번째 아내는 "그는 명상이 삶으로부터 피난처가 아니라는 사실에 매우 확고했다"고 회고했다.

글래스만은 생전 인간들을 배가 부르고 목구멍이 좁은 '아귀(hungry ghost)'의 존재로 봤다고 한다. 불교 윤회 사상에 입각하면, 생전 탐욕에 쌓인 삶을 산 사람은 죽은 후 환생을 할 때 인간계나 축생계가 아닌 아귀계에서 태어난다. 이 중 아귀는 항상 굶주림을 느끼는 귀신(또는 죽은 사람)을 의미한다. 즉 글래스만은 인간을 '욕망에 가득 차 늘 불만족한 존재'로 보고 그들에 대한 연민으로 평생 봉사하기로 스스로 다짐했다.

글래스만은 자비행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에 '선 수행'을 전파한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는다. 미국에 처음 명상이 유입될 당시 미국인들은 명상을 매우 '어려운 것'으로 여겼다고. 그런데 그가 아시아권의 불교 명상법과 미국인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했다. 버클리 선 센터의 호잔 앨런 세나 우케(Hozan Alan Senauke)는 "(미국에서) 불교와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 어느 정도의 빚이 있다"고 평가했다.

CNN에 따르면 그는 1996년 "우리 주위의 다양한 갈망과 존재를 보는 것은 문자 그대로 형성적인 경험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불교언론 '트리사이클(tricycle)' 또한 버니 글래스만을 '영적 수행과 사회운동에 대한 열정을 함께 실천한 선구자'로 평가했다. 트리사이클에 따르면 글래스만은 사회복지사이자 엔지니어, 그리고 광대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70세이던 2009년 '젠 하우스'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가난한 이웃들 가까이에 주거형 다르마 센터를 지어 선 수행자들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글래스만은 이외에도 '삶을 살아가는 선스승의 교훈' '선의 가르침' '평화를 이루기 위한 선' 등의 책을 다른 선수행자들과 함께 썼다.

트리사이클은 "수년간 글래스만의 친구로서 그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영광이었다"고 그를 추모했다.



세계적 선 수행 지도자 버니 글래스만(Bernie Glassman)은 생전 긴 머리를 하고 담배를 즐겨 피웠다. 외형은 전형적인 선 수행자의 모습이 아니었지만, 서양사회에 불교를 전파한 선구자로 꼽힌다. 사진출처=CNN

中 불교성지 구화산서 사라지나

당국, 불상 강제철거 등 '종교의 중국화' 속도

중국 당국이 안후이성 구화산 불자들에 대한 엄중 단속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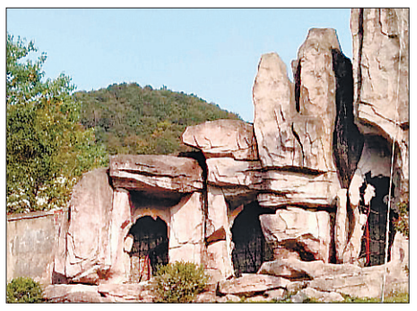
구화산은 중국 안후이성 츠저우시 칭양현 내에 있는 불교 4대 성지 중 하나로, 지장보살 도량이다. 이밖에 관세음보살의 푸퉈산, 보현보살의 어메이산, 문수보살의 우타이산이 4대 성지에 포함된다.

이 같은 구화산 내에서도 의미 깊은 아치형 석조물이 강제 철거됐다고 중국의 종교전문 일간매체 비터윈터(bittherwinter)가 12월 4일 보도했다. 아울러 구화산불교협회(Jiuhua Mount Buddhist Association) 회장은 가택 연금 당했다.

아치형 통로가 철거된 것은 지난 10월 19일. 홍콩의 한 저명인사가 38만 위안을 기증해 1994년 지어진 건축물이다. 구화산 입구를 연결하던 통로다.

현지 승려는 "이번 (석조물) 철거는 구화산 전체 명성에 타격을 가했다"며 "당국은 종교의 중국화 정책에 따라 구화산 곳곳에 국기를 올렸다. '핵심 사회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종교 규정이 포스터물로 모든 벽에 게시됐다"고 토로했다.

해당 승려에 따르면 정부는 사찰 내에서 향을 태우는 것조차 제한시켰다. 가장 작은 크기의 향을 3개까지만 태우는 것이 허용된다. 사찰이 이를 준수하는지 지도하고 엄중 관리한다. 많은 승려들이 이미 당국에 의해 사찰에서 쫓겨났고,



중국 당국의 '종교의 중국화' 정책으로 인해 불상이 있던 석굴이 비어버렸다. 사진출처=비터윈터

동굴에 새겨진 역사 깊은 불상들도 대거 훼손됐다는 설명이다.

구화산 인근에서 불교용품 상점을 운영하던 한 주인에 따르면 정부는 불교용품 상점마저 폐쇄 조치했다. 그렇지 않으면 '불교'나 '불상'을 뜻하는 표기법이 강제 제거되거나 수정됐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당시 "불교는 이교도 가르침이다"면서 불교용품 판매를 금지시킨 것으로 알려진다. 또 다른 상점 주인 역시 "중앙정부의 지시에 저항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고 전했다.

구화산 일대 불자 및 사찰들에 대한 단속은 당국의 공공보안 및 도시 관리국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안후이성 남쪽 츠저우(Chizhou)시(市) 내에서도 17개 사원이 철거되거나 철거를 앞두고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우즈베키스탄서 고대 불교벽화 발견

2~3세기 작품 추정… 불교미술 변화상 엿보여

고대 실크로드를 통해 불교문화가 확산 · 발전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불교벽화가 우즈베키스탄서 발견됐다.

'아사히신문' '글로벌 부디스트 도어' 등은 "우즈베키스탄 남부 테르메즈에서 발견된 2~3세기 불교벽화가 고대 실크로드를 따라 확산된 불교문화의 변화상을 보여준다"고 12월 4일 보도했다. 이 언론에 따르면 해당 벽화는 2016년 우즈베키스탄 과학아카데미 현지 연구원들과 일본 도쿄에 위치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인 릿쇼대학 연구진이 발견했다. 벽화가 발견된 곳은 불교사원유적인 카라 테퍼(Kara Tepe) 불탑 옆 지하 2m에 위치한 석실이다.

너비와 길이가 각각 1m인 벽화는 붉은 색과 파란 색의 밝은 색조가 다양한 인물과 형상을 도드라지게 하고 있다. 야스다 하루키 릿쇼대 미술사학과 교수는 "이 벽화는 한때 부처님의 삶을 묘사했던 더 큰 작품의 일부일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벽화가 발견된 카라 테퍼 유적은 2001년 탈레반에 의해 파괴되기 전 바미얀 불상이 서있던 아프가니스탄 국경과 바미얀 계곡 사이에 위치한다. 이는 한때 실크로드의 문명 교차로와 겹치는 지역이다. 이로 인해 그리스와 로마 스타일의 헬레니즘 회화 영향을 받은 유물과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상상의 새 가루다 두상도 발견된 바 있다.



우즈베키스탄 남부 테르메즈에 위치한 불교유적 카라 테퍼에서 발견된 벽화. 사진출처=아사히신문

중앙아시아 불교미술 전문가인 아키라 미야지 나고야대 명예교수는 "이번에 발견된 벽화는 인도와 페르시아 요소를 결합한 것으로, 초기 불교미술의 변화상을 엿볼 수 있다. 초기불교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벽화"라며 "유연한 빗질과 색칠은 바미얀 불화보다 오래된 작품의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윤호섭 기자

양지국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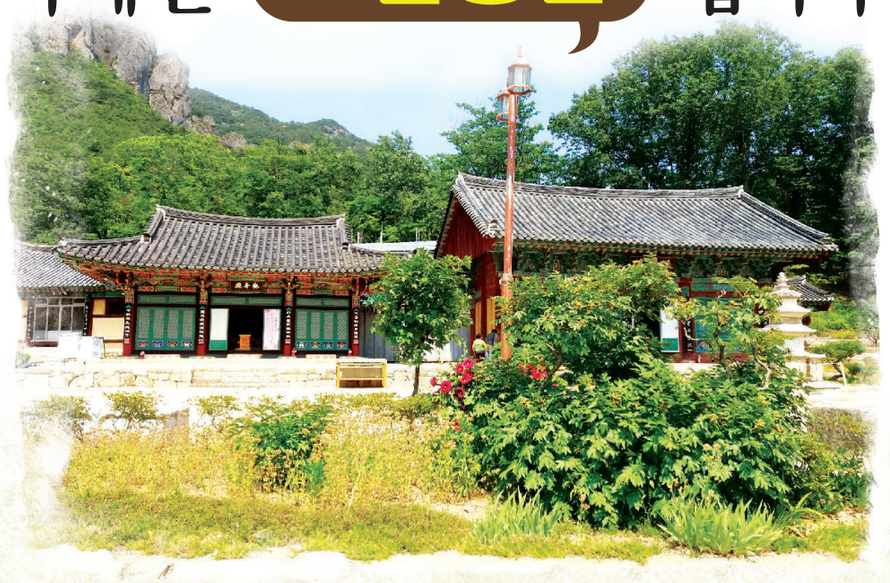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서울시 종로구돈의동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 기 도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 문 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